KIA 마운드 '플랜B'로 승률 높인다

윤중현·유승철 호투 실점 줄여 "기회 되면 대체 선발도 나서겠다"



KIA 타이거즈가 튼실 한 '플랜B'로 마운드 승 률을 높인다.

KIA는 스프링캠프기 간 임기영과 이의리가 부상으로 동시에 이탈하 면서 일찍 '플랜 B'를 가

동했고 한승혁, 윤중현, 이민우, 유승철 등이 선발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전개했다.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션 놀린, 로니 윌리엄스가 세 자리를 채웠고 이의리가 순조롭게 재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되면 서 일단 마운드 시름은 덜었다.

한승혁이 한층 안정된 제구로 5선발에 들어가면 서 선발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KIA는 시즌 시작과 함께 부상 변수를 만났다.

놀린이 지난 3일 LG전에서 김현수의 타구에 왼쪽 팔꿈치를 맞으면서 3회 1사에서 교체됐다. 병원 검진 결과 골절 부상은 피했지만 일단 엔트리에서 제외해 등판을 쉬어가도록 했다.

위기 상황에서 '플랜 B'가 빛을 발했다.

이날 윤중현이 박수를 받았다. 윤중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히 마운드에 올랐지만 2.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줬다. KIA는 윤중현의 활약으로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경기에서 끝 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5일 한화전에서는 유승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으로 KIA 앞선 7회초 김도영의 실책이 빌미가 돼 필승조 전상현이 흔들리면서 경기가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1사 만루에서 유승철이 시즌 첫 등판에 나섰고, 희생플라이로 1점은 내줬지만 7회를잘 마무리했다. 유승철은 8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이어 8회말 류지혁이 2타점 역전 적시타로 4-3을 만들었고, 9회초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해 KKK로 KIA의 2022시즌 첫 승을 완성했다.



윤중현

유승철의 호투로 사령탑 데뷔승을 만든 김종국 감독은 "유승철은 선발이 빨리 무너지면 최소 실 점으로 6회까지는 끌고갈 수 있는 선수로 생각했 었다. 선발 후보였지만 유승철, 윤중현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했고 기대한 모습이 나왔다"고 두 선 수의 활약을 이야기했다.

남은 시즌에서도 두 선수는 중간에서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부상과 코로나19라는 변 수는 있지만 탄탄한 '플랜B'가 준비되면서 KIA는 마운드 변수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민우가 이번 주말 SSG전에서 임시 선발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놀린은 6일 1군 선수단과 훈련을 하며 '오케이'를 외쳤다. 임기영도 재활을 끝내고 퓨처스리그 등판을 준비하면서 마운드 옵션이넓어지고, 그만큼 경쟁 효과도 나고 있다.

윤중현은 "(놀린이 공에 맞는 것을 보고)깜짝 놀랐다. 초반에 항상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바 로 몸을 풀었다. 작년에 저런 상황에도 나가봐서 병살타를 만드는 게 최선이니까 땅볼 만든다는 생 각으로 올라가자마자 들어갔다"며 "첫 단추는 잘 끼운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상황이 오면 이 렇게 나가서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또 "힘든 상황에 나가는 걸 코치님도 아셔서 고생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신다. 그런 상황에 나가서 던지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뜻깊게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이닝을 던지기 위해 빠른 카운트에 승부 하려고 하는데 상대타자들도 그걸 알아서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려는게 보인다. 그래서 너무 정직하게 승부하기 보다는 잘 섞어서, 잘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몸을 풀고 있지만 선 발 욕심도 낼 생각이다.

윤중현은 "지금은 선발로 나설 수 없으니까 불 펜에서 최대한 상황에 맞춰서 잘하고, 대체 선발 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잘하고 싶다. 그러 면 기회도 올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쟁이 바탕이 된 '플랜B'로 KIA가 마운드 업 그레이드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승찰

김종국 감독, 극적인 뒤집기로 데뷔승 '시원한 물세례' 박찬호 새 리드오프 소감 묻자 "쳐보고 말할게요" 류지혁 결승타 친 뒤 "도영아, 조급해 말고 하던대로 해"

덕아웃 T 톡톡

▲오승환 끝내기 안타 이후 처음?

김종국 감독은 지난 5일 한화전이 끝난 뒤 시원한 물세례를 받았다. 이날 경기가 4-3 승리로 끝나면서 김 감독은 세 경기 만에 감독 데뷔승을 기록했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선수들은 축하의 의미로 김 감독과 장정석 단장을 향해 물 세리머니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했다. 김 감독은 6일 경기 전 "얼마 만에 받은 물세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승환한테 끝내기 안타 친후 처음이다"고웃었다. 김 감독은 현역시절이던 2009년 6월 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연장 12회 승부를 승리로 장식하는 끝내기 안타를 오승환을 상대로 뽑아냈었다.

▲혼자 급해

KIA의 새 외국인 선수 로니 윌리엄스가 지난 5일 한화전을 통해 KBO리그에 첫선을 보였다. 초반 빠른 승부로 이닝을 처리했던 로니는 아쉽게 6회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5.2이닝 4피안타 1볼넷 8탈삼진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김종국 감독은 "구위 자체는 좋았고 투심, 체인지업도 좋았다. 투구수가 많은 게 아쉬웠는데 기대감이 생기는 투구였다"면서도 "주자가 있을 때 스타트 타임 뺏으려고 (투구 패턴을) 길게 가져간 것 같은데 오히려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다. 타자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주자는 뛸 생각이 없는데혼자 급했던 것 같다(웃음). 아직 어리고 경험이없지만 몇 번 경기하면 한국 선수들 성향도 알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 주까지 잘 치고 말하겠습니다

박찬호가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면서 6일 한화전에서 리드오프로 낙점됐다. 김종국 감독은 이날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보시다시피 박찬호 컨 디션이 제일 좋아보인다(웃음). 스윙도 거침없이 하고, 주루도 자기 전문이니까 활발하게 해준다" 면서 박찬호 1번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호는 개막 후 3경기에서 7타수 3안타와 함께 2볼넷, 2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박찬호는 경기 전 인터뷰 요청에 "다음 주까지 치고 말하겠다"고 웃으면서 타격감 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타이거즈 첫 고졸루키 개막전 리드오프 기록을 만든 김도영 은 초반 부진 속 7번 타순에 이어 이날 9번 타순으 로 물러나 타석에 섰다.

▲경쟁은 경쟁이고

KIA의 시즌 1호 결승타 주인공은 류지혁이었 다. 류지혁은 지난 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8회 초 김도영의 대수비로 들어갔다가, 2-3으로 뒤진 8회말 1사 1·2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승리 의 주인공이 됐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류지혁은 눈길을 끌었다. 이날 3루수 겸 7번타자로 선발 출 장한 김도영이 두 타석에서 모두 초구를 공략해 아 웃됐고, 실점의 빌미가 되는 실책까지 기록했었 다. 류지혁에게는 새로운 경쟁자지만 그는 덕아웃 에서 김도영을 다독였다. 류지혁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하던 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줬다"며 "경쟁은 경쟁이고 도영이라는 친구가 못 하길 바라는 것보다 같이 도와주는 게 맞다. 나도 자극받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도움될 말이 있으면 해주고 있다"고 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마스터스 출전 …"우승할 수 있다"

1년 4개월 23일 만에 복귀

'골프 황제'타이거 우즈(미국)가 마침내 필드 에 복귀한다.

우즈는 8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출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즈는 이날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현재로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 을 것 같다"고 마스터스 출전 결심을 밝혔다.

우즈가 PGA투어 정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20년 11월 마스터스 이후 1년 4개월 23일 (509일) 만이다.

작년 2월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절단할 뻔할 만큼 크게 다쳤던 그는 10개월 재활 끝에 지난해 12월 가족 대항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아들과 함께 출전했지만, 그때는 코스에서 카트를 타다

그동안 72홀을 걸어서 경기하기에는 아직 다리에 힘이 붙지 않았다던 우즈는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정규 투어에 복귀한다.

우즈는 기자회견에 앞서 1시간 가량 연습장에서 한참 동안 볼을 치며 샷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여 출전 결심을 예고했다.

그는 "내일 9홀을 돌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몸 상태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즈는 연습 라운드에서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터트렸고, 다소 불편한 걸음걸이였지만 오 르막과 내리막이 심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을 걸어서 누볐다.

연습 라운드를 통해 우즈는 샷과 체력이 마스터 스에서 경쟁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린 것 으로 보인다.

우즈는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전을 결심했다"면서 강한 자신감과 함께 "72홀을 걷는 게 가장 힘겨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스는 진작부터 우즈의 복귀 무대로 점쳐 졌다. 마스터스는 우즈가 새로운 '골프 황제' 대관 식을 올린 곳이자 부활을 알린 곳이다.

우즈가 1997년 처음 메이저대회 우승을 신고했고, 2019년에는 11년 만에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



타이거 우즈가 6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연습라운드 도중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를 보탰다.

우즈의 메이저 15승 가운데 5승이 마스터스에서 나왔다.

우즈가 만약 이번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 잭 니 클라우스(미국)의 통산 최다 우승 기록(6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역시 니클라우스가 가진 최고령 우승 기록(46세 2개월 24일)을 갈아치운다. 우즈는 7일 오후 11시34분 루이 우스트히즌(남

우즈는 7일 오후 11시34분 루이 우스트히즌(남 또 "지역 예선에 아공), 호아킨 니만(칠레)와 함께 1라운드 경기를 골)을 했고, 35세 시작한다. /연합뉴스 레스·에딘손 카바

ESPN "한국 월드컵 16강 간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전망 2승 1무로 조 2위 예상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해 11월 개막하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 서 2승 1무를 기록해 16강에 오를 것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6일 2022 카타 르 월드컵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전 경기 결과 를 예측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H조의 한국은 1차전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1-0으로 이기고, 2차전 가나전도 1-0 승 리를 거둬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ESPN은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에 대해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기량이 절정일 때 치르는 대회"라며 한국의 우위를 점쳤다.

반면 우루과이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최악의 팀(인터 마이애미)에서 해고된 감독이 팀 을 맡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또 "지역 예선에서 많은 실점(22골·경기당 1.2 골)을 했고, 35세 스트라이커 두 명(루이스 수아 레스·에딘손 카바니)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의 2-0 승리, 포르투갈과 가나의 1차전은 포르투갈의 2-0 승리,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2차전은 포르투갈의 2-1 승리를 각각 예상했다.

따라서 2차전이 끝났을 때 이미 한국과 포르투 같이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ESPN은 마 지막 3차전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0-0으로 비길

것으로 예상했다. 가나와 우루과이의 3차전 역시 2-2 무승부로 전 망했다.

ESPN에 따르면 16강에서 G조 1위 브라질이 H 조 2위 한국을 상대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브라질 에 0-2로 져 8강에는 들지 못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월드컵 4강에는 브라질-프랑스, 잉글랜드 -독일이 진출하고, 결승에서는 브라질과 잉글랜 드가 만나 브라질이 1-0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

ESPN이 전망한 아시아 국가들의 조별리그 예상에 따르면 A조카타르는 3패, B조 이란 1무 2패로 나란히 탈락이다. C조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3패로 짐을 싼다고 내다봤다.

'죽음의 조'로 불리는 E조에 편성된 일본은 독일에 2-3으로 지고, 코스타리카를 1-0으로 꺾지만 스페인에 0-2로 패하면서 1승 2패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